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601>

JCCT 2024-9-71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운영 및 0~5세 영유아 교원 양성 타당성

Feasibility of operating a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aged 0 to 5 years old and training teachers for young children aged 0 to 5 years old according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gration implementation plan

박지희*, 김대욱**

Park, Ji-Hee*, Kim, Dae-Wook**

요약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20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발표되었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운영이 제시되었다. 0~2세와 3~5세 교육과정이 내용에서 비슷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육과정을 합칠 때 교육과정의 내용, 교원 자격, 재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개발됨에 따라 교원자격도 0~5세 영유아교사로 설정되어야 한다. 연구의 결론은, 먼저, 교육과정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다음으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사들은 0~5세 영유아교사로 양성해야 한다.

주요어 :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사, 영유아교육정책

Abstract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in progres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as announced in June 2024.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was proposed. The curriculum for 0-2 year olds and 3-5 year olds is similar in content and was developed with the same standards. It is natural for the two curricula to be combined. When merging the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teacher qualifications, and finances together. As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is developed, teacher qualifications should also be set as 0-5 year olds teacher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iculum should be unified into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Next, teachers who will teach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should be trained as 0-5 year olds teachers.

Key words :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mplementation plan, young children's curriculum, young children's teacher,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정희원,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10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Received: June 10, 2024 / Revised: July 12,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dandi@g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1. 서 론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23년 유보통합의 핵심쟁점을 교원의 자격, 통합모델, 교육과정으로 보고 3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사람들은 이 중에서 유보통합에서 교사의 자격과 통합모델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지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0~2세 교육과정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도입되어 있다. 3~5세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도입되어 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2가지 교육과정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자연스러우며 필요하다[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만 개정 때마다 누리과정을 먼저 고친 후,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표준보육과정을 수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유보통합의 국면에서 교육과정은 마땅히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0~2세와 3~5세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때 모든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유보통합의 목적이기 때문에 0~5세로 교육과정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4년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시안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 향후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2].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표준보육과정은 내용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한계로 0~2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재 0~2세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모든 연령의 교육과정을 관리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0~2세 교육과정이 개발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는 4차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2024년 교육부가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면서 만 2세와 만 5세를 이음연령을 지정하였다[2]. 만 2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만 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

학교를 각각 잇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제정될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핵심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3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는 유초이음학기가 실시되고 있다[3]. 교육부의 이음연령 지정은 이음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상향시켜 기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연계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0~2세 표준보육과정은 3~5세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구성한다[4].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에서 연계가 되어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10, 11]. 선행연구들에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내용적인 연계성이 있어왔다는 충분한 고찰이 있었는데, 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이 구분되어 개정되어 왔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0~5세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0~2세와 3~5세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향후 0~5세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2]. 교육부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고찰하고 논리적으로 적절함을 살펴보기 위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고찰한다.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교육과정과 영유아교원양성은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1]. 0~5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맞춰 영유아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교사 정원은 국가적 관리대상으로 교육부가 정원을 조율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보육학회의 3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등 영유아교원양성 관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시도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보통합이 진행중이며, 교원양성이 핵심적인 부분만큼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영유아교원양성 관련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1]. 따라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교육할 0~5세 영유아교원 양성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이원화의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영유아교육과정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영유아교원 양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이원화 문제

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내용의 유사함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연령구분이 명확하다. 표준보육과정은 만 0~1세, 만 2세의 구분,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구분을 각각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영역이 서로 다른 점은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영역, 의사소통영역,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영역, 의사소통영역,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의 5개 영역과 거의 동일하며 기본생활영역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10,1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내용의 차이는 없으며 연령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차 표준보육과정은 목적과 목표, 내용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따라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4]. 내용상의 구분은 없지만 연령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각각 0~2세, 3~5세 교육과 돌봄을 맡고 있다. 세부적인 영역 구성과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격차는 운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2024년 현재, 국가수준 0~2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0~2세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적 유사함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이원화로 인한 재정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로도 연결된다[1]. 여기서는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재정상 문제를

짚는다.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인면서 운영비 지원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누리과정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가르키는 명칭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영유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12]. 그런데,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교육과정 지원비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밝히는 유보통합의 목적이 영유아의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확인해졌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금 차이로도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 9월 13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혜택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할 것을 통고시켰다[5]. 2023년까지 만 5세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때 누리과정지원비로 28만원에 급간식비 7만원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누리과정지원비에 급간식비를 포함하여 28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비의 격차를 해소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6]. 하지만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과정과 급간식비를 상향 통일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차별받고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다.

III. 영유아교육과정이 0~5세 교육과정으로 일원화될 필요성

1.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6~17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영유아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이다. 교육과정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교육과정간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간 연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유·초·이

교육과 유·보 이음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다[2].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유·보-초 연계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유·초 연계는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연계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0~2세, 3~5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며, 영아와 유아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4].

사실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은 이미 동일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고, 목적과 목표 및 구성의 중점에서도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연계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4]. 이처럼, 교육과정 간의 연계가 이미 제시된 것을 볼 때 다음 교육과정에서 0~5세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2023년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 유·보이음을 제시하였고,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만 2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 것을 통해 이러한 흐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교육부는 앞서 논의한 내용과 비슷한 검토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향후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임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2.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도입할 때의 쟁점: 교원 자격과 재정적 쟁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교육과정의 일원화에 따른 교사자격의 연동에 대한 쟁점이다. 유보통합에 따라 새롭게 정립될 영유아 교사의 양성방안으로 0~5세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 단일학과로의 방향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1]. 유보통합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 차이는 없으며 단순히 연령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용상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합쳐지는 것이 적절하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다. 현재 유치원은 3~5세,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육과정이 0~5세로 일원화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적용되며 무엇보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돌보아는 교사의 자격이 하나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생긴다는데 있다.

현재 유보통합 관련 교사의 자격은 실행계획(안)에서 만 0~2세, 3~5세 이원화 체제, 만 0~5세 일원화 체제 중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2].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이 일원화되면 0~2세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며 이로 인한 반대의견이 있다[6].

둘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른 재정적 쟁점이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될 때 현재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지원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 영유아교육·보육비를 재산정하여 이를 유보통합 핵심재정으로 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있다[2]. 이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누리과정 증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왔다[12].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0~2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3~5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에서 3~5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액이 상이하다[1].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학교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호봉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지원되어 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려면 어린이집 0~2세와 3~5세, 사립유치원의 3~5세 교사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상향하여 일원화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도 처우개선비로 제시되었다[2]. 이를 위한, 상당액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쟁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할 때의 쟁점으로 교원자격과 재정적 문제가 해당된다.

먼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교원의 자격이 0~5세 자격으로 통합된다. 현재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0~2세와 3~5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술한 것과 같이 내용구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로 개발된 교육과정일 때와 구분된 형태일 때는 차이가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구성의 증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따라서 만든 것이다[4]. 하지만,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새롭게 함께 만들어야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 편성 및 운영, 영역별 목표와 내용까지 동일한 구성과 흐름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형태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연구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은 갖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의 동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모델이 0~5세 영유아 학교 혹은 유아학교로 제시되었다[2]. 영유아학교나 유아학교 안에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현재 0~5세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0~2세는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3~5세는 누리과정을 각각 적용하여 교육과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혼선이 있다.

다음으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재정적인 문제는 영유아 교육의 핵심 주체인 영유아와 교사 두 가지 주체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해서 살펴본다. 0~2세 영아는 표준보육과정을 지원받고 있고,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각각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받고 있는데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다니면서도 격차를 경험하지만, 연령별로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명칭이 지원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원액을 적절하게 상향시켜야 한다.

교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교원에 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차이난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계속해서 제안되어 왔다.[7].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교법인인 아니기 때문에 본봉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이에 따라 처우개선은 상당의 형태로 지원되어 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월 85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는 월 49~59만원으로 지역별로 상이하다[2]. 이 처우 개선비가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일원화시키면서 교사의 처우도 상향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영유아 및 교사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진다.

IV.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교원

1.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의 연령 구분

표준보육과정은 0~2세 보육과정이다. 세부적으로 연령이 0~1세와 2세로 구분되어 있다. 누리과정에서 연령 구분은 3~5세로 되어 있다. 2012와 2015 개정 누리과정에서 연령별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 개정되면서 연령구분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령 구분은 표준보육과정에서 0~1세와 2세, 누리과정에서 3~5세로 제시되었다[4].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도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정 간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총론, 체계 등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체계 통일성 강화 방침이 발표되었다[2].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내 연령 구분은 기존체계 0~1세, 2세, 3~5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의 연령 구분에 대한 해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만 2세 이음연령 지정에 따른 유-보 이음 강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일부 상이함을 통일할 뿐 아니라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도 병행되었다. 만 2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유-보 이음을 강조하였다[2]. 현장에서 유-보 이음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1명

씩 포함시키는 유-보 이음 현장교사단 운영을 제시하였다.

유-보 이음은 2023년 4월 발표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도 제시되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은 유보통합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영유아교육의 계획 및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보 이음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는데, 2023년 10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아이행복 유-보 이음 현장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만 2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함에 따라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

아직까지 유-보 이음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많은 논의와 현장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유-보 이음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 이음 교육의 방향으로 교사들 간의 현장 방문, 수업 나눔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유-보 이음은 교육과정 내용이나 운영 모든 부분에서 연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유-보 연계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이후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보 이음은 유-초 이음학기의 진행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유-보 이음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유-보 이음에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초 이음의 성공적 안착의 원인 중의 하나는 기한을 명확히 하였다라는 것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예산을 연간 990만원씩 제공한다는 데 있다. 유보 이음에는 유초이음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3.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영유아 교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0~5세 영유아 교원에 대한 타당성이 제시되었다. 교육부 실행계획(안)에 나오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르면, 개편방안으로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신설하고, 영아-유아,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요소와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2]. 특히, 영아

-유아 간 연계를 강화하고 만 2세 이음연령을 지정하는 등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교육과 들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교육과정 상에서 기존체계 구분인 0~1세, 2세, 3~5세를 유지하는데, 이 부분은 2012와 2015 개정 누리과정이 3~5세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2012와 2015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3세, 4세, 5세로 각각 제시하였지만, 교사 양성을 3세, 4세, 5세로 구분지어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상 연령이 구분되었지만, 유아교육과 중심의 학과에서 3~5세를 위한 유아교사를 양성해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연령이 0~1세, 2세, 3~5세로 구분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만 2세가 이음연령으로 지정되면서 2세와 3~5세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한층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사 양성을 단일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영유아교육과를 기반으로 단일학과에서 전문성있는 영유아교사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1]. 2024년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교사 양성에 대해 0~2세와 3~5세로 이원화하거나 0~5세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안이 발표되었다[2]. 하지만 교육과정이 연령별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교사 양성을 별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교육부에서 0~2세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어서 연령이 분리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개발 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표준보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아닌 것은 내용의 문제나 개발한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0~2세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도 교육과정에서 0~2세와 3~5세를 구분하는 내용은 없으며, 0~5세 연계를 강화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나 아동관련 학과에서 0~2세 영아교육과와 3~5세 유아교육과를 구분하여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령인구 감축으로 인해 대학에 입학하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13]. 영아교육과와 유아교육과를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면 대학의 입학자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교원 자격 상향에 따라 4년제 영유아교육과나

전공,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원이 2027년부터 양성 될 것이다[2]. 교사 수급은 국가적 과제이다. 필요한 숫자의 영유아교원의 숫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하여 유보통합이 완성된 이후에도 필요한 숫자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0~2세와 3~5세 교원을 구분하여 양성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인 도전이며 모험이 될 것이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른 0~5세 영유아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에 따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운영 타당성과 이에 따른 교사 양성 체계의 적정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이원화 문제이다. 현재, 영유아교육과 돌봄을 설명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유사성이 크며 통일성과 연계성을 염두해두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보통합이 진행된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은 교육과정이 0~2세와 3~5세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0~5세로 일원화되어 있다[14].

우리나라는 영유아교육과정이 0~2세와 3~5세와 이원화되어 있어 영유아와 교사를 지원하는 재정적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1]. 교육과정이 0~2세와 3~5세로 이원화된 문제가 0~5세로 일원화되어야 재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일원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는데, 중앙부처 단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내용상 유사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더 이상 구분하지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교육부도 0~5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2]. 0~5세 영유아와 담임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면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 대한 제한점이 없어진다[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9]. 현장 교원

들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원이 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을 통한 전문성 있는 영유아교원을 양성하고 영유아교육(학)과를 중심으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의 영유아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1].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이다[8]. 교육과정이 일원화된 이후에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양성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이원화 문제를 짚고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내용을 마련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영유아교원 양성을 연결하여 0~5세 영유아교원 양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D.W. Kim, Qualifications for teachers of 0-5-year-old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centered training system and a teacher qualification plan for existing teachers after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8 No. 3, pp. 1-27, 2023.
- [2] Ministry of Education, *Implementation Plan (Method)*,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upport officer, 2024.
- [3] J.H. Jeong, Gyeonggi Office of Education, Kindergarten→Elementary School 'Connected Education' Empathy and Communication Space, edaily news, 2024.06.14.
- [4] M.H. Lee, "Play well to grow well", revision of play-centere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64, pp. 15-22, 2020.
- [5] J.S. Shin, Additional support for kindergarten tuition and daycare fees to be promoted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tegration' to be accelerated, economy of seoul news, 2023.09.13.
- [6] A.R. Jeon,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Association: "The name of the

- integrated kindergarten institution should be 'young children school', and the ages 0-2 and 3-5 should be distinguished.", *baby news*, 2024.07.09.
- [7] D.W. Kim,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eachers of young children, Forum of education and childcare experts to collect opinions on reforming the integrated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pp. 29-35, 2023.07.24.
- [8] Y.M. Lee, Exploring the Aspect and Type of Teacher's Curriculum Implementation: Focusing on the Use of Curriculum Materials and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38, No. 4, pp. 207-236, 2020.
- [9] S.H. Ji, Regarding the Reservation Integration Policy,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Linking Infants,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32, No. 1, pp. 171-187, 2024.
- [10] S.J. Choi, & S.Y. Cho., An Analysis of the Continuity and Sequence of Science Educational Contents in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Nuri Curriculum for 3 to 5 Year-Olds, and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Vol. 19, No. 1, pp. 69-91, 2015.
- [11] H.K. Kim., & S.H. Kim., Analysis of the linkage between the two-year-old standard child care curriculum and the three-year-old Nuri curriculum teacher's guide books, *The Journal of Literatu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Vol. 14, No. 4., pp. 503-523, 2013.
- [12] J.W. Kim, & S.K. Nam, A Study on Change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 System and its Impact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penses, *The Politicis of Education*, Vol. 27, No. 3, pp. 166-187, 2020.
- [13] H.S. Kim, Effect of Declining School Age Population on University Finances : Focusing on Financial Indicators and Models for Judging Business Performance,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iton*, Vol. 36, No. 2, pp. 1-21.
- [14] S.H. Ji. Regarding the Reservation Integration Policy,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Linking Infants,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e Journal of*
- Yeolin Education*, Vol. 32, No. 1., pp. 171-187, 2024.